



날으는 홍범도장군

제11호
2016. 12. 6
겨울

사단법인 여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03035)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10길 17(신교동) 발행인:이종찬 편집인:홍성덕
TEL:02)734-8851~2 FAX:02)722-0251 http://www.hongbumdo.org



홍범도 장군 순국 73주기 추모식 및 학술회의 성황리에 개최 학술회의 주제: “러시아 동포사회에서의 홍범도장군의 역할”

(사)여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이사장 이종찬)에서는 홍범도장군 순국 73주기를 맞아 지난 10월 25일(화) 오후 경복궁 경내에 있는 고궁박물관 강당에서 추모식과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구남신 서울북부보훈지청장과 러시아 대사관 2등 서기관 올렉 피로젠코, 홍범도함 승조원 130여 명이 참석하여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문준진 사무총장이 진행한 추모식에서 이종찬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하여 “홍범도장군은 무장투쟁 뿐 아니라, 우리 동포들이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독립운동의 최고 영웅으로서의 존엄으로, 우리 동포사회의 구심점이 되었다”고 추모하였다. 이어서 구남신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의 추모사와 이상엽 홍범도함 부함장의 추모편지 낭독이 있었다.

이어서 진행된 학술회의에는 카자흐스탄 고려인문 최영근 전 사장과 중국 흑룡강성 밀산시 맹고군 전 부시장이 참석하여 주제를 발표하여 박수를 받았다.

신효승 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학술회의 주제는 “러시아 동포사회에서의 홍범도 장군의 역할”로 무장투쟁 이후 홍범도 장군의 행적을 조명한 자리로, 박환 수원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학술회의 제1주제는 “러시아의 적군 활동과 자유시 참변”으로 윤상원 전북대학교 교수의 연구 발표가 있었다. 윤 교

수는 “우리 독립군이 자유시로 이동한 것은 무장부대를 통합하려는 의도가 강했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자유시 사변은 고려혁명군 주도로 통합하면서 대한의용군에 대한 무장해제 과정에서 충돌한 비극이었지만, 러시아의 자료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많은 피해는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제2주제는 “강제 이주와 카자흐스탄에서의 정착 활동”으로 홍용호 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교수가 발표하였다. 홍 교수는 “스탈린이 자행한 고려인의 강제 이주는 역사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반인륜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제3주제는 “러시아 동포사회에서의 홍범도장군에 대한 인식과 추모사업으로 최영근 카자흐스탄 공훈문화인이 발표하였다. 홍범도 장군은 “자기 디아스포라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특별주제는 “홍범도 장군의 중국 밀산에서의 행적과 독립운동”으로 맹고군 밀산시 전 부시장이 발표하였다. 홍 장군은 해외 무장독립투쟁의 첫 기지인 밀산 한홍동의 무관학교에서 교관으로서 무장조직 창건에 기여했고, 1920년 11월에는 밀산에서 창건된 대한독립군단의 부총재로 활동했다고 설명했다.

종합토론은 박환 교수 진행으로 심헌용 군사편찬연구소 연구위원, 성동기 인하대학교 교수, 장세운 동북아역사재단 교수실장 등이 지정토론을 벌였다(발표내용 4, 5면 참조).

홍범도 장군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정착과정에서 우리 동포사회의 구심점



이종찬
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신 홍범도장군님의 영전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지난 10월 25일 개최된 추모식과 학술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재삼 감사 말씀드립니다.

추모식은 전 생애를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바치신 홍범도 장군님을 추모하고, 장군님께서 남기신 위업과 독립운동정신을 조명하고 계승하기 위하여 마련된 행사였습니다.

2005년 (사)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를 창립하여 중책을 맡기 이전부터,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특히 독립운동의 원로이시며, 독립운동에 관한 가장 많은 연구와 저서를 남기신 전 광복회장 이강훈 선생으로부터 무장독립투쟁의 '최고의 명장은 홍범도장군'이라는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11년 전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를 창립하기 이전을 회고해 보면, 홍범도 장군께서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역사적 평가는 매우 인색했고 오히려 공산주의자로 매도되고 있는 현실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추모식도 제대로 열지 못했던 안타까운 실상이었습니다.

저희 기념사업회에서는 그 동안 홍범도 장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벌여 왔습니다. 매년 봉오동전투 전승기념행사와 추모식, 학술회의를 개최하면서 장군의 위업을 여러 가지 측면으로 조명하여, 지금은 독립전쟁사상 최고의 영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한 2013년에는 카자흐스탄에서 고려인 동포들과 함께 추모식과 학술회의를 개최했고, 2015년 봉오동전투 전승행사를 전투현장에서 현지 동포들과 함께 장군의 업적을 되새기고, 한민족의 정체성과 동질성을 드높이는데 기여했습니다.

그 동안 학술회의에서는 의병투쟁,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의 전개과정과 전황, 홍범도 장군 항일투쟁의 이념적 배경과 교훈, 3·1운동 이후 독립군 형성과 홍범도장군의 역할, 무장투쟁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 유격전 전략전술, 외국의 평가 등 무장투쟁 전반에 관한 연구발표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학술회의는 무장투쟁에 관련된 연구발표였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1920년 러시아로 넘어 간 후의 행적이나 역할에 관해서는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금년에 개최된 학술회의에서는 무장투쟁 이후 "러시아에서 홍범도 장군의 위상과 역할"에 초점을 맞춰 연구결과를 발표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그 동안 조명하지 못했던 러시아에서

의 적군활동과 자유시 참변, 1937년 강제 이주 이후 카자흐스탄에서의 정착과 역할, 그리고 서거 이후의 평가와 추모사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검토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무장투쟁 뿐 아니라, 우리 동포들이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독립투쟁의 최고 영웅으로서 존엄으로, 우리 동포사회의 구심점이 되었고 어려운 여건과 시련 속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활로를 개척하신 지도자였습니다.

금년 학술회의에는 매우 귀중한 분들을 모셔서 발표를 들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벌인 독립군 양성과 재정비했던 현장인 중국 밀산시 맹고군 전 부시장이 참석하여 홍범도 장군이 밀산에서 벌였던 독립전쟁 준비과정과 청산리전투 후 러시아로 퇴각하기 이전 독립군의 재편성 관련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카자흐스탄에서 오신 최영근 선생께서, 홍범도 장군 서거 이후 현지에서의 평가와 직접 참여하신 추모사업에 관한 경험담을 발표했습니다. 최 선생께서는 "레닌 기치"신문의 편집국장과 "고려TV방송" 국장, "고려신문" 사장을 역임하신 카자흐스탄의 공훈작가 이십니다.

이번 학술회의는 1920년대 이후 독립군이 아니라, 독립운동의 최고 영웅으로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 정착하는 우리 동포사회에서 어떤 역할과 기여를 하셨는지를 조명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기념사업회는 봉오동전투 승전기념행사와 추모식, 학술회의를 통하여 홍범도장군께서 독립운동을 벌였던 만주지역이나 연해주, 카자흐스탄이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과 교류를 통하여 한민족으로서의 정통성과 동질성을 회복하고 진정한 민족의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동포들이 거주했던 이 지역이 독립운동의 기지였고, 현지 동포들의 지원과 보호로 독립운동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1961년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사를 인용하고자 합니다.

"국가가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바라지 말고, 여러분이 조국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홍범도 장군은 미천한 하층민으로 출생하여 국가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은 바 없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조국광복이라는 대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셨던 분입니다.

저희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가 중심이 되어, 아무런 대가 없이 투철한 애국정신으로 헌신하신 홍범도정신을 현창하는데, 앞장서서 모든 국민들의 가슴 속에 메아리 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합니다!

끝으로 73주기 추모식과 학술회의에 참석하신 발표자 및 토론자들과, 귀빈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술회의 발표 토론자 합동 사진>

맹고군 밀산 전 부시장, 최영근 고려신문 전 사장 학술회의 주제발표

홍범도 장군 서거 73주기 추모학술회의에는 중국과 카자흐스탄 동포 대표가 참석하여 관련 주제를 발표하였다. 중국 흑룡강성 밀산시 맹고군 부시장은 홍범도 장군이 밀산에 체류하는 동안의 행적과 독립운동 내용을 발표했다.

한편 카자흐스탄 고려신문 사장을 역임한 최영근 공훈문화인은 중앙아시아 동포사회에서의 홍범도 장군에 대한 평가와 추모사업에 관한 주제를 발표하였다.

홍범도함 이상엽 부함장 일행 추모식 참석

우리 기념사업회와 자매결연 관계에 있는 대한민국해군 홍범도함 이상엽 부함장 등 승조원 대표 5명이 추모식에 참석하여, 홍범도장군께 드리는 편지를 낭독하였다.

추모식에 앞서 홍성덕 부이사장은 홍범도함 대표단을 고궁박물관 레스토랑으로 초청하여 오찬을 함께 했다.

홍범도함은 지난 4월 1일에 진수한 1,800톤급 잠수함으로 미사일 발사장치를 갖춘 해군의 최신에 잠수함이다



<홍범도함 승조원 사진>



국립 서울현충원 무후선열제단 홍범도 장군 위패 참배

지난 10월 24일, 홍범도 장군 추모일 하루 전날에 홍성덕 부이사장 등 임원 일행은 동작동 국립 서울현충원 애국지사묘역의 무후선열제단(無後先烈祭壇)에 있는 홍범도 장군 위패를 참배하였다. 무후선열제단에는 후손이 없고, 묘소도 없는 애국선열 120여 분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홍 부이사장을 비롯하여 홍이표 이사 내외분과 홍재구, 황원섭 이사 등이 참배하였다.

홍범도기념사업회, 제천의병축제 참가

제천시에서는 10월 7~9일까지 창 의121주년 을 맞아 제천의병제를 개최하였다.

우리 기념사업회에서는 의병광장에 체험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장군께 드린 메시지를 작성하였다. 여기에는 홍성덕 부이사장, 홍헌일 감사, 손광춘, 황원섭 이사, 문준진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2일간 교대로 봉사했다. 제천의병장 유인석과 홍범도 장군은 의형제처럼 지냈으며 여천이라는 호는 유인석의 자 여성과 맞추어 유인석이 지었다고 한다.

도 장군께 드리는 글, 편지쓰기

(사)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홍범도 장군 추모 학술회의(1주제)-홍범도 장군의 러시아적군 활동과 자유시 사변, 윤상원(전북대 교수)

자유시사변은 독립군 통합과정에서 발생한 독립운동사상 최대의 비극



홍범도 장군은 1908년 간도를 경유, 러시아령 연해주로 넘어간 이후 활동무대는 연해주였다. 이 때문에 홍범도의 주요 활동은 러시아의 정세 변화와 이 지역 고려인들의 민족해방투쟁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어 진행되었다.

특히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벌어진 내전 속에서 많은 한인들이 러시아 적군 및 빨치산들과 연대하여 항일투쟁을 벌였던 점을 감안하면, 홍범도의 러시아 적군과의 관계를 세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선 3·1운동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총리로 취임한 이동휘가 간도와 연해주 지역 한인 무장부대를 통합하여 단일한 독립군단을 창설할 계획을 수립하고, 간도에서 그 역할을 홍범도가 맡기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

청산리 대첩 이후 간도와 연해주에서 활동하던 무장부대들은 자유시에 와서 대한의용군을 조직하였다. 하지만 자유시에서 무장부대 통합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상해과가 배후인 니항부대와 이르쿠츠크파 공산당을 배경으로 한 자유대대 간에 분란이 일어났다. 극동비서부가 동양혁명을 관촬하게 되

면서 자유대대를 중심으로 한 고려혁명군이 통합의 중심에 서게 된다. 결국 고려혁명군과 대한의용군 사이에 주도권 다툼으로 독립운동사상 최대의 비극이라고 하는 자유시 참변이 발생하게 되었다.

홍범도는 자유시로 이동해 온 후 고려혁명군에 참여하였다. 간도에서 이동한 무장부대가 고려혁명군정의회로 옮겨진 배경은 '무장부대의 통합'이라는 명분과 '소련 및 코민테른의 권위'를 인정, 그리고 '무기와 식량의 원활한 공급'이라는 현실적 조건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자유시 참변으로 대한의용군에서는 피살, 의사, 행불자를 포함하여 약 600여명, 포로 917명 등 1,500여명의 피해가 있었다는 주장도 있지만, 고려혁명군에서는 사망 36명, 포로 864명 등 1,012명이 희생했다고 발표했다. 포로들 중에서 500여명이 재판에 회부되어 428명은 극동공화국 2군단으로 인계되어 우수문 벌목장에서 강제 노동에 종사했다. 나머지 72명은 중범죄자로 분류되어 '임시고려군사혁명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재판장은 채동순, 위원은 홍범도와 박승만이였다. 재판에 회부된 사람은 50명으로 이들 중 3명은 징역 2년, 5명은 징역 1년, 24명은 1년간 집행유예, 17명은 방면되어 군에 복귀했다고 한다.

홍범도 장군은 독립군 지도자로서의 권위와 신망 때문에 자유시 참변을 심판하는 고려혁명군사법원 재판관 위원으로 참여한 동기를, 재판에서 독립군들이 피해를 줄이고 공정한 판결이 되도록 하려고 참여했지만, 개인적으로는 큰 부담이 되었다.

홍범도장군 추모 학술회의(2주제)-강제 이주와 카자흐스탄에서의 정착 활동, 홍웅호(동국대 교수)

스탈린의 강제 이주는 반인륜적인 행위이며, 역사적 만행 고려인은 근면성과 성실성으로 삶의 터전을 개척한 가장 성공한 민족



홍범도장군은 항일무장투쟁 전개는 물론 연해주 고려인들의 해방을 위하여 연해주에서 소비에트 정권을 수립하기 위하여 싸운 최고의 영웅이다.

그러나 홍 장군의 활동과 성과에 비해 정당하게 평가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우선 출신지가 북한의 평양이고, 주로 러시아 연해주에서 활동했으며, 소비에트 건설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또한 1937년 17만 명이 넘는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어,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오랫동안 지워졌기 때문이다.

스탈린에 의하여 자행된 고려인들의 강제 이주는 역사상 결코 있을 수 없는 만행이었다. 당시 소련 공산당은 '극동지방에 일본 정보원들이 침투하는 것을 차단할 목적으로' 강제

이주시킨 것이며, 이때 독일인, 크림 타타르인, 체첸인들도 함께 스탈린의 반인륜적 행위로 고통을 받았다.

1937년 12월 말 고려인의 강제 이주는 완료되었다. 연해주에서 이주한 고려인은 모두 37,061가구에 174,979명이였다.

고려인들을 강제 이주하라는 소련공산당의 명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혼란과 무질서의 결과로 극히 일부 지역에서 토굴을 파고 살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려인들은 매우 짧은 기간의 강제 이주이였지만, 공산당에서 계획적으로 배정받은 지역에 정착하였다.

1938년부터 고려인들은 근면하고 성실한 민족의 특성을 발휘하여 수로와 논을 개간하여 벼를 심고, 집을 짓고, 학교를 세워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었다. 강제 이주 2년 후에는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소련에서 가장 큰 성과를 올린 민족으로 평가받았다.

민족영웅인 홍범도 장군도 나이가 70세가 넘었음에도 고려인 사회의 큰 어른으로서 열정과 당당한 기개로 모범을 보였다. 말년에 홍범도장군이 고려극장의 수위로 일했다는 점도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

홍범도 장군은 연금을 받았지만 고려극장에서 50루블을 지원한 것은, 액수와 직위의 문제가 아니다. 고려인의 큰 어른으로 동포들과 고통을 함께하고, 기쁨도 같이 나누기 위하여 고려인들이 가장 많이 모인 곳을 선택한 것이다.

흥범도 장군 추모 학술회의(3주제)-러시아동포사회에서 장군에 대한 인식과 추모사업 최영근(카자흐스탄 공훈문화인)

흥범도 장군은 고려인에게 독립운동정신, 민족의식, 민족공동체 사상을 고취시킨 정신적 유산



흥범도 장군은 1943년 서거한 후에도 고려인 동포들에게 독립운동정신, 민족의식과 민족공동체 사상을 고취시켰던 정신적 유산으로 평가되고 있다.

흥범도 장군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하고 생애의 마지막 6년을 지냈던 곳이 카자흐스탄의 옛 수도였던 크즐오르다였다. 이곳에는 고려인들의 민족정체성을 부활시켰던 연해주 '선봉'신문의 후계인 '레닌기치'신문과 고려극장이 있으며, 고려인 작가들과 연예인들이 모여든 곳이다.

고려극장은 흥범도 장군이 서거하기 1년 전에 태장춘 극작가가 희곡을 쓰고, 최길춘 연출가가 만든 연극 '흥범도'가 상영된 곳이다.

이인섭은 1958년 '흥범도 장군' 상권을 탈고하고 다음해 하권을 끝냈다. 흥범도가 고려인 사회에 대중적으로 알려진 것은 고려인 작가 김세일이 소설 '흥범도'를 '레닌기치'에 연재하

면서부터이다. 이 소설은 1965년 10월부터 15년 동안 124회를 연재하였고, 1990년에 고송무 교수가 국내에서 출간했다.

고려인 1, 2세대는 흥범도 장군의 정신을 이어가면서 자기의 노력과 지혜로 디아스포라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이바지했다.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에서 삶의 터전을 개척했고, 그 나라의 발전에 기여했고, 자랑할 만한 인재들을 배출했다. 소련 농업부문의 발전에 기여한 성과로 200여명이 '사회주의 노력 영웅' 칭호를 받았다.

흥범도 장군의 묘지는 서거 당시 독소전쟁으로 집 근처에 임시로 분묘를 조성했다가 제2차 대전 종료 후에 중앙공동묘지로 옮겼다. 크즐오르다 소비에트 결정에 따라 장군께서 거주했던 부근 도로를 '흥범도거리'로 명명하였다. 묘지는 수차례 보수와 정비를 거듭하였고, 1996년 5월에는 한국정부와 기업이 제공한 기금으로 흥범도 장군 흉상 주변에 건립하였다.

1994년 한국 초대 카자흐스탄 대사 김창근이 흥범도 장군의 유해를 한국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문제를 추진했으나, 당시 현지 동포회의에서 '장군은 카자흐스탄 동포들의 상징이므로 평양이나 서울 어느 쪽도 아닌 크즐오르다에 두기로' 의견을 모았다.

장군의 묘역은 2012년 이후 흥범도펀드가 해체됨에 따라 관리가 부실하여 수풀만 무성하여 참배객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관련부처의 주도로 체계적인 관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흥범도 장군 추모 학술회의(4주제)-중국 밀산 지구에서의 행적과 독립운동 맹고군(중국 밀산시 전 부시장)

밀산에서 대한독립군단 결성 시, 흥범도 장군은 부총재로 추대 한흥동 무관학교에서 교관으로 군사이론과 독립운동 방략 교육



조선인들이 밀산에 정착하기 시작한 것은 1889년부터이며, 1910년을 전후하여 독립운동을 위하여 많은 한국인들이 밀산으로 이주하였다.

1909년과 1919년에 밀산부에 세운 '한흥동'과 '십리와'는 한국독립운동사상 최초로 세워진 독립운동 기지가 있었던 곳이다. 한국 독립전쟁의 영웅 흥범도, 대한독립군단 총재 서일, 대종교 3대종사 윤세복 등 저명한 독립운동가들이 밀산에서 활동하면서, 한국군대사에 빛나는 편장을 엮어 놓았으며, 중국의 항일투쟁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1910년 4월 신민회의 안창호, 신채호, 조성환, 리동휘 등이 해외무장독립기지를 창립할 것을 결의하고, 밀산부에 '십리와'지역에 해외무장투쟁기지를 건설하였다. 흥범도 장군은 1915년 7월 일부 장병을 대동하고 십리와 기지에 도착하여, 수전 농사를 위하여 수로를 개발, '흥범도 도랑'이라고 불렀는데, 아직도 이 수로를 사용하고 있다.

흥범도는 한흥동 무관학교에 초빙되어 교관을 맡아 군사이론과 독립운동 방략을 가르쳤다.

비록 흥범도는 밀산에서 2년 동안 체류했지만, 불멸의 항일 투쟁정신과 업적은 우리 민족의 역사적 재부(유산)으로 영원히 전해질 것이다. 한흥동 무장투쟁기지는 3·1운동 이후 본격적인 대규모 무장독립전쟁을 준비한 터전이며, 1920년 봉오동전투와 청산리대첩의 기초가 되었다.

청산리 대첩 이후 일제의 전례없는 대토벌과 봉계군벌 장작림의 공세, 경제적인 후원의 결핍으로 밀산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1920년 12월 서일의 북로군정서, 흥범도의 대한독립군, 안무의 국민회군과 신민단, 독도부, 의군부, 혈성단, 야단, 대한정군정사 등 9개 반일무장단체 3,300여명이 밀산에 집결하여 대한독립군단을 결성하였다. 총재는 서일, 부총재는 흥범도·김좌진·조성환 등이고, 총사령으로 김규식을 선임하였다.

1921년 1월 대한독립군단 장병들은 이만시를 거쳐 연해주 코르사프카에서 대한독립군총합부로 개편하여 총장은 서일, 군사령관은 흥범도, 군무부장은 김좌진, 외교부장은 최진동이었다.

1921년 6월 소련홍군 29연대와 자유보병대대는 통합에 동조하지 않은 한국무장단체를 진압하여 자유시 참변이 일어났다.

최근 몇 년 동안 밀산시 민족유지들은 '밀산조선족 100년사', 역사문화예술 종합집 '흥개호반에 피어난 진달래'를 출판하였고, '십리와 항일유적지' 기념비, '서일총재 항일투쟁유적지' 기념비를 세우고, '한흥동 항일투쟁 유적지 기념비와 흥범도장군 항일투쟁 유적지' 기념비 건설을 계획 중이다.

흥범도장군 유족들이 국가유공자로 서훈을 받도록 건의하자. 부인과 차남은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 장남은 정평전투에서 전사



감사 홍헌일

“일어나라 조국의 자식들이여, 들리는가, 흥폭한 적들이, 우리 아내와 아이들의 목을 따기 위해, 으르렁대는 소리가.
무기를 들라, 우리의 발고랑에, 저들의 더러운 피로 물길을 대자...”

프랑스 애국가 “라 마르세예즈”의 제 1절 가사의 대략 내용이다. 너무도 끔찍한 이 노래 가사가 진짜야?, 프랑스 어느 소도시에서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는 관광객이 합창하는 어린이들의 노래와 가사를 듣고 섬뜩해 했다는데, 그들은 청아한 목소리로 힘차게 부르고 있었다. 합창이 끝나자 “강한 조국 프랑스를 위하여!”를 외쳤다. 제2차 대전 당시 나치에 대항하여 싸우던 프랑스인들의 결의에 찬 절규, 그 자체였다.

필자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날은 흥범도, 백두산 호랑이!”로 이름을 떨친 흥범도 장군의 항일투쟁 위업으로 우리 해군에서 일곱 번째로 명명한 최선에 잠수함 “흥범도함”의 진수식에 참가하고, 함장 초청으로 진해 해군기지를 답사하였다. 그리고 임무를 마치고 정박한 흥범도함과 동급인 214급 김좌진함 내부를 견학하였다.

이번 답사기간 동안 임진왜란 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제해권을 장악하여 국난을 극복했던 역사를 교훈삼아, 해군을 창설했다는 해설을 감명 깊게 들었다. 해군 창설의 아버지인 손원일 제독께서 푼푼이 모은 봉록과 부인의 폐물을 팔아 모은 돈 6만 달러를 들고 대통령을 찾아가 전투함 한척을 사달라고 하여, 해군 최초의 군함 “백두산호”를 진수하였다. 1950년 6·25전쟁 발발 이튿날, 부산 앞바다에 기습 침투한 북한군 766특수 부대를 태운 무장 수송선을 격침하여 남해상 방어선을 지켰다.

우리 일행은 흥범도함 진수식과 진해 해군기지를 돌아보면, 우리 기념사업회가 흥범도장군의 기념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구한말 한반도를 둘러싼 짙은 먹구름이 이 땅에 소용돌이친 후 신흥 해양대국으로 패권을 차지한 일본이 조선의 몰락한 왕정과 비탄에 빠진 국토를 중흥무진으로 짓밟히자, 을미사변을 전후로 전국 각지에서 위정척사를 부르짖으며 의병이 일어났다. 이 때 흥범도장군은 동료 포수들과 같이 거병하여, 1895년 제천의병에 참여하였다. 이 때 흥범도장군은 유인석 선생과 의기가 투합 되어, 평생 독립운동의 동지가 된다. 유인석 선생은 흥범도에게 자신의 자인 여성(汝聖)과 같은 자를 따서 여천(汝千)이라는 호를 지어주었다.

여천 흥범도는 1868년 평양 외곽의 미천한 집안에서 태어나 진위대 나팔수와 광산 노동자, 사냥과 제지 공을 지내면서, 일제에 대한 적개심을 갖게 되었고 난폭한 왜놈 심장을 때려눕

힌 후 피신하여 금강산 신계사로 입산하였다. 신계사에서 지담(止潭)을 상좌로 모시고 임진왜란 당시, 강토가 유린 되었을 때 호국승병들이 나라를 구했던 가르침을 듣고 큰 감명을 받았다. 청년 흥범도는 24살 때 사찰을 떠나 갑산에서 포수로 사냥 생활을 하던 27살에 의병진에 가담하여 포수꾼들과 함께 활동하던 중 1897년 절에서 만났던 이옥구(단양)와 결혼하여 양손과 용환을 낳았다. 36살에 북청 포계(포수조합)연대장에 추대되어 풍산, 삼수, 갑산일대를 주름잡았다. 1907년에 일제가 총포화약류단속령을 내리자, 이를 거부하고 북청을 중심으로 무장 항일의병대를 조직하고, 후치령고개에서 해산진으로 가던 우편마차를 기습하여 일제경찰과 북청수비대를 섬멸하였다.

그가 40살 때, 삼수와 갑산 두 곳을 점령하면서 일군을 사살하고 총기 18정을 노획하는 큰 전승을 올리자, 주민들은 “날은 흥범도 장군”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이러한 엄청난 전과에도 불구하고, 흥 장군의 집안에는 큰 불행이 닥쳐왔다. 일제가 장군의 신출귀몰한 유격전술에 연전연패하자 북청 수비군 사령관 야마모토 대좌의 명령으로 대대적인 소탕전을 전개하고, 장군의 부인과 자식들을 인질로 체포하여, 장군을 귀순토록 회유하고 고문을 자행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만다.

1908년 5월 고문으로 시달리던 부인이 갑산감옥에서 순국하였다. 뒤이어 풀려난 아들 양순은 장군을 도와 전투 때마다 선봉에서 활약하던 중 6월 16일 정평의 바배기 전투에서 의병 중대장으로 지휘 중 적탄에 맞아 장렬하게 전사하니, 그의 나이 19살 청소년이었다.

둘째 아들 용환이는 일제의 소탕전을 피해 장군을 따라 화룡현에서 북로군정서 흥범도 독립군부대를 편성 최진동, 안무와 연합하여 대한북로독군부를 결성 전투력을 강화하였을 때 20살의 나이였다. 훗날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에서 장군을 따라 두 전투의 대첩에서 큰 공을 세웠다고 한다. 그러나 청산리 대첩 후 오랜 의병활동과 지친 산채생활로 투병 중 1921년 6월 5일, 21살의 나이로 꽃 한번 크게 피우지도 못한 채 병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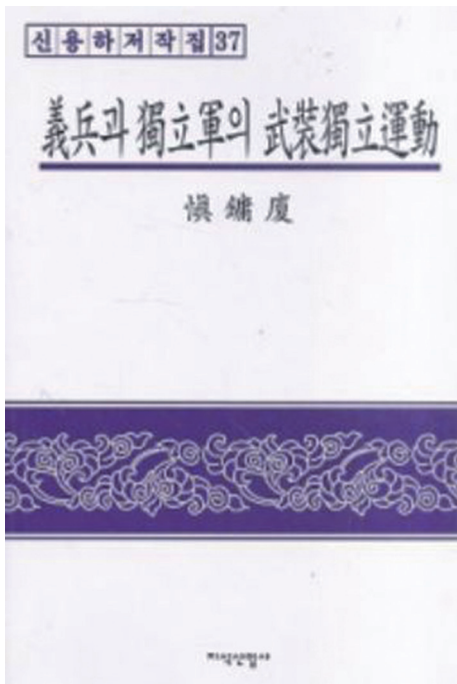
장군의 부인과 자식들은 조국 독립이라는 큰 꿈을 품었으나, 이루지 못한 채 고혼이 되어 조국과 국민들이 찾아 줄 날을 기다리면서 지금도 눈을 감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장군은 평생을 조국 강토와 만주별관, 연해주 일대에서 의병진과 독립군을 지휘하면서 20여 차례의 전공을 세운 무장독립투쟁사상 최고의 명장이며 영웅이었으나, 전선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잃고 지금도 홀로 크졸오르다 공원묘지에서 잠들어 계신다. 그곳에서 가족들의 유구를 기다리고 있을 장군 앞에 우리 기념사업회가 앞장서서 흩어져 있는 시신들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해야 되겠다. 또한 독립투쟁 과정에서 전 가족을 조국에 바친 공로를 인정, 품격에 맞는 공훈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기념사업회에서 주선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신용하 지음

“의병과 독립군의 무장독립운동”

흥범도 의병부대는 후치령 전투를 비롯해서 약 37회에 걸쳐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전개, 섬멸, 격퇴했고,
최초로 조직된 대한독립군은 봉오동과 청산리대첩의 주역



이 책은 저자가 그동안 구한말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에 관해 발표한 논문들 가운데 열두 편을 뽑아 엮은 것이다. 조국강토에서 일본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몰아내고, 민족의 자유해방과 독립을 다시 쟁취하려고 투쟁한 한국민족의 독립운동은, 한국인이 거주하는 곳이라면 전 세계 어디

산리 독립전쟁의 내용을 실증적으로 고찰하고, 최근 일본에서 이를 부정하며 폄하하려는 시도를 비판하였다. 독립군 부대별 고찰로서는 봉오동전투와 청산리 대첩을 주도하거나 참가한 대한(북로)군정서 독립군, 대한신민단 독립군 및 간도 대한국민회의와 대한국민군(국민회군)의 항일무장투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저자의 관점에 따라 1932년 윤봉길 상해의거를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사활동의 일부인 “특공작전”으로 보아 다양한 자료를 인용하여 고찰하였다. 그리고 중경 임시정부가 1940년에 창설한 한국광복군의 임시정부가 직접 군사활동을 시작한 것을 분석하고, 독립운동이 새로운 양상으로 발전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 책의 결론에서는 흥범도 장군이 의병부대에서 시작하여 대한독립군으로의 전환 발전한 것을 독립군 발전의 전형적인 사례로 지적하였다. 또한 흥 장군의 전술적 특징은 오랜 포수 생활과 의병투쟁의 전투경험을 토대로 민첩하고 신속하게 기동하며, 잠복과 기습으로 일제의 허를 찌르는 탁월한 유격전술에 있다고 분석하였다.

흥범도 장군은 맨 먼저 독립군을 조직했고, 맨 먼저 국내진입작전을 단행했으며,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공세적 전략전술을 구사한 것이 큰 특징으로 보았다.

이 책은 필자가 평생의 연구업적을 정리한 신용하 저작집(전 51권) 가운데 한 권이다. 저작집 속에 포함된 연구서의 면면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필자가 일관되게 지녀온 연구 자세는 한마디로, 한국근대사 연구에서 가장 큰 병폐로 인식되었던 사대주의나 식민주의 역사 해석에 대한 강한 반발에서 출발한 것이다. 특히 이 책의 주제인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에서 보여주는 필자의 주체적인 역사 해석은, 국수주의에 바탕을 둔 맹목적인 베일이 아니라, 철저한 사료 고증에서 나온 해석이기에, 다른 연구자들에게는 연구결과 면에서든 연구방법론에서든 좋은 지침이 될 것이다.

(지식산업사 출판, 2만 5천원, 2003년)

(정리: 홍성덕)

서나 전개되었다. 이것은 세계사적으로 매우 정당한 투쟁이었다. 한국민족의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 투쟁은 독립운동에서 골간을 이루고 있다.

이 책은 2부로 나누어졌다.

1부에서는 구한말 의병의 항일무장투쟁을 다루었다. 구한말 의병운동의 기점을 사실과 일치하게 1년 더 앞당기고, 의병운동의 전개과정을 5단계로 설정하여 고찰했으며, 서울탈환작전을 주도했던 허위 의병부대와 민공호 의병부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독립군의 형성을 크게 나누어 보면 의병으로부터 독립군으로 발전한 흐름과, 신민회 애국계몽으로부터 독립군으로 발전한 흐름의 양대 흐름이 합류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특히 의병에서 독립군으로 발전하는 흐름의 전형으로 흥범도 의병부대가 대한독립군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집중적으로 고찰하였다.

2부에서는 일제 강점기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다루었다. 독립군 항일무장투쟁의 대표적 전투인 봉오동전투와 청

임원동정

○이종찬 이사장



(재)우당장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종찬 이사장은 지난 11월 17일 상동교회에서 개최된 우당이회영선생 순국 84주기 추모식과 장학금 전달식을 주재하였다. 장학회에서는 국가보훈처와 광복회의 추천을 받아 중·고·대학생 53명을 2016년도 장학생으로 선정하여 8,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이우재 고문



윤봉길의사 월진회 회장인 이우재 고문은 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 민간위탁사업으로 9월 22일 예산군 덕산면 매현학교에서 학생 및 교사 50명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주관하였다.

○홍성덕 부이사장



홍 부이사장은 기념사업회를 대표하여 11월 19일 인사동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최운산장군기념사업회 창립세미나에 참석하였다. 최 장군은 흥범도장군과 함께 봉오동전투에 참여한 최진동의 동생이다.

○김희일 이사



서울홍산문화중국어도자박물관장인 김희일 이사는 10월 말 (사)동아시아유물보존관리협회 회장으로 취임하고, 가야국제경매회사와 함께 중국 도자연구소를 설립하여 감정업무를 시작하였다.

○손광춘 이사



도서출판 수서원 대표인 손광춘 이사는 9월 15일 흥범도함 승조원들에게 『조선시대 사대부의 건강요법』 책자 50부를 기증하였다. 지난 9월 8일에는 흥범도함 초청으로 진해 방문 시 윤정상 해군잠수함사령관 등에게 『한국의 수군』이라는 책을 선물하였다.

○홍성종 이사



남양홍씨 남양군파대종회 회장인 홍성종 이사는 11월 중순까지 선조들에 대한 추모 행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홍 이사는 침대부품의 특허를 받아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던 부품을 국산화시키는데 성공하였다.

○홍이표 이사



애지모 대표인 홍이표 이사는 10월 23일 춘천국제마라톤대회에 회원 130여명과 함께 참석하였다. 11월 12일에는 한국노총중앙교육원에서 이종찬 이사장을 초청 50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하는 애지모 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애지모는 애국을 생각하는 지혜로운 소비자 모임으로 환경봉사지킴이운동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박환 연구위원



수원대학교 교수인 박환 연구위원은 11월 26일 나혜석학회 정기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박 교수는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회장,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김환길 자문위원



서울중등독립운동사교육연구회 회장인 김환길 위원은 11월 12일 연구회 답사일정을 주관하여 제천시방 의병 유적지를 답사하고, 11월 24일에는 우당기념관에서 ‘일본교과서의 왜곡 서술’을 주제로 한 연구발표를 개최하였다.

○문영숙 자문위원



최재형선생기념사업회 이사인 문영숙 위원은 지난 9월 16일 카자흐스탄에서 개최한 고려인 축제 및 러시아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단으로 참여하고, 11월 17일에는 카자흐스탄국립대 한국어과에서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 독후감 작성대회를 개최하였다.

○박재옥 사무국장



기업경영 컨설팅을 하는 박재옥 사무국장은 영등포시장역(5호선) 인근에 성림파트너스라고 하는 컨설팅 사무실을 개업하였다. 박 국장은 비상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과 정책자금 조달 및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하고 있다.

○김성훈 청년부장



대우증권에 근무하는 김성훈 청년부장은 2016년 8월에 국제재무분석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김 부장은 기업금융 업무 중 상장을 원하는 기업에 대한 증권 발행 및 자문업무를 담당하고 있다.